

우리나라 木造建築에 보이는

所謂 雙S字紋 彫刻에 대하여

金 東 賢

우리나라 木造建築의 棋包 部材중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簷遮(침차) 마구리 밑면에 보이는 所謂 雙S字紋 彫刻의 意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조각의 모양은 중국이나 일본의 木造建築에서 별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하여야 될 彫刻紋樣이라 생각된다. 所謂 雙S字紋 彫刻은 우리나라 木造建築을 연구하는 여러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傳播의 문제라던가 발전변화과정에 관한 길은 고찰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이 彫刻紋樣의 명칭에 있어서 모양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없는 형식적인 이름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雙S字紋 彫刻은 우리나라 木造建築의 意匠技法 發展過程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의 길은 연구없이 餘他 建築彫刻 意匠技法의 變遷과정 연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외의 하나는 木造建築에 있어서 時代的 변화에 가장 민감하였던 부분이 棋包 부분이었으며 棋包중에서도 특히 簷遮의 마구리 밑면 彫刻 부분이 더욱 예민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簷遮 마구리 밑면의 조각문양 명칭을 所謂 雙S字紋이라 불리워지는 데에 관하여 항상 불만을 가졌으며 이 조각문양이 어디에 그根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所謂 雙S字紋 조각에 관한 명칭과 그 傳來에 대하여

어 問題를 제기하여 보고저 하였다.

二

棋包는 기둥 위에 없져 지붕의 처마 부분 荷重을 받아 기둥에 전달하는 力學的 기능과 처마길이를 의부로 길게 내밀게 하고 건물 내부 천장 높이를 높게 하는 空間的 기능을 갖고 있다. 棋包는 일반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기둥 위에 올려 놓은 柱頭와 柱頭 위에 끼워 맞춘 簷遮、簷遮 위에 다시 簷遮를 올려 놓기 위한 여러개의 小累(소로·柱頭的 모양과 같으나 柱頭보다 작은 것)、그리고 簷遮짜임 위에 얹힌 長舌(장혀)、長舌위에 서까래를 받치기 위한 道里까지를 말한다. (圖一)

棋包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拱包、또는 貢包등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중국의 木造建築에서는 斗拱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와는 우리나라의 柱頭와 小累에 해당되며 그 部材모양이 되(곡식의 분량을 추정하는 용기)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며 棋은 우리나라의 簷遮에 해당되는 部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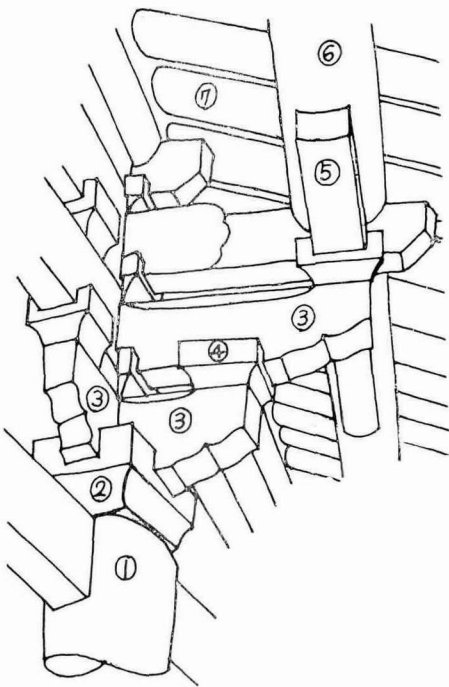


圖 1. 拱包說明圖

- ① 기둥 ② 柱頭 ③ 簷遮 ④ 小累
- ⑤ 長舌 ⑥ 道里 ⑦ 서까래

말함이니 柱頭와 簷遮를 組合한 것이 즉 斗棋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木造建築에 있어서도 역시 棋包는 斗棋이라 하며 간혹 組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簷遮에 해당되는 부재는 肘木(주목.. 잡아당겨 정지시키는 나무의 뜻)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簷遮라는 用語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華城城役儀軌(편찬은 城役完료의 해인 正祖 二〇年(一七九六年)에 완성되었으나 간행은 純祖 원년 一八〇一年에 되었음)에 圖面과 함께 用語가 보이고 있어 오래전부터 簷遮라는 부재의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三國史記 屋舍條에 보면 建築除限의 설명중에 拱牙, 花斗牙 등의 용어가 보인다. 이들 拱牙, 花斗牙가 棋包 전체를 말하는 용어인지 아니면 簷遮에 해당되는 용어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棋包와 직접 관계가 있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만일 花斗牙가 簷遮에 해당되는 부재라면 花斗牙의 모양에 꽃과 관련된 모양이 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木造建築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크게 두가지 樣式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한 樣式은 柱心包系 樣式이며 다른 한 樣式은 多包系 樣式이다. 이 두 樣式중에 雙S字紋 彫刻은 주로 柱心包系 建物の 簷遮에 사용되었으며 현존 건물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安東 鳳停寺 極樂殿을 비롯하여 榮州의 浮石寺 無量壽殿, 禮山 修德寺 大雄殿, 江陵 客舍門, 昌寧 觀龍寺 藥師殿, 康津 無爲寺 極樂殿 등의 건물에서 볼 수 있다. [圖二] 또한 雙S字紋 彫刻의 영향은 多包系 建物和 翼工系 建物에도 미쳐 우리나라 木造建築의 특징적인 조각 모양이 되었다. [圖三] 이러한 특징적인 簷遮의 조각 모양 명칭은 지금까지 어떻게 불려졌는 지 다음의 문헌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關野 貞

「朝鮮의 建築과 藝術」一九四一」

(「簷遮」를 여러가지 彫形으로 하고……)

② 藤島亥治郎

『天燈山 鳳停寺』中央美術 第一六號 (一九三四)

(「簷遮」를 垂直으로 자르고 下端의 唐草樣 彫形은 浮石寺 無量壽殿에 보이는 것과 같은……)

③ 杉山信三

「朝鮮建築에 보이는 天竺樣의 傳來에 對하여」美術研究 第一七五號 (一九五四)

(「簷遮」의 彫形은 反曲線(S字形)을 두개 합친 것……)

④ 杉山信三

「麗末鮮初 木造建築의 研究」一九五七, 第三編 第二章 第二, 三節

(「疎組形式에서는 S字形曲線을 둘 組合한 形을 갖고……)

(「下端을 草刻하는 法이 S字曲線을 둘 接친……)

⑤ 尹張燮

「韓國建築史」一九七三.

第五章 第一節

(「簷遮의 端部下面은 韓國 柱心包에 共通되는 特徵으로 되어 있는 特異한 草刻(S字形曲線)을 두개 結合하여 中括弧의 表識을 경사시킨 것과 같은 모양)을 하였으며……)

⑥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一九七四.

第三章 Ⅱ, 1, 鳳停寺 極樂殿

(「簷遮」의 直切되어 있고 밑 線刻 모양이 보통 柱心包系의 原型인 雙S字形으로 되어 있고……)

⑦ 張慶浩

「韓國木造建築에 나타난 包에 關한 研究」弘大大學院 一九七五.

(「簷遮」의 處理에 있어서는……新羅에서 三瓣으로 깎았던 簷遮의 雙S字形 또는 蓮花紋으로 變型……)

이상의 木造建築에 관한 논문 이외에도 簷遮에 관한 설명이 많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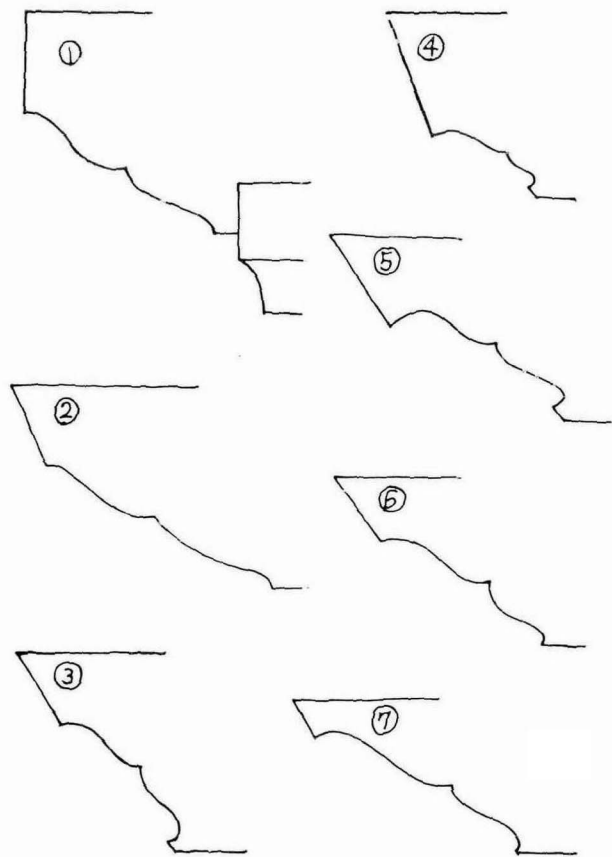


圖 2. 簷遮 마구리 紋樣

- | | |
|-----------|------------|
| ① 鳳停寺 極樂殿 | ② 浮石寺 無量壽殿 |
| ③ 修德寺 大雄殿 | ④ 江陵 客舍門 |
| ⑤ 松廣寺 國師殿 | ⑥ 觀龍寺 藥師殿 |
| ⑦ 無爲寺 極樂殿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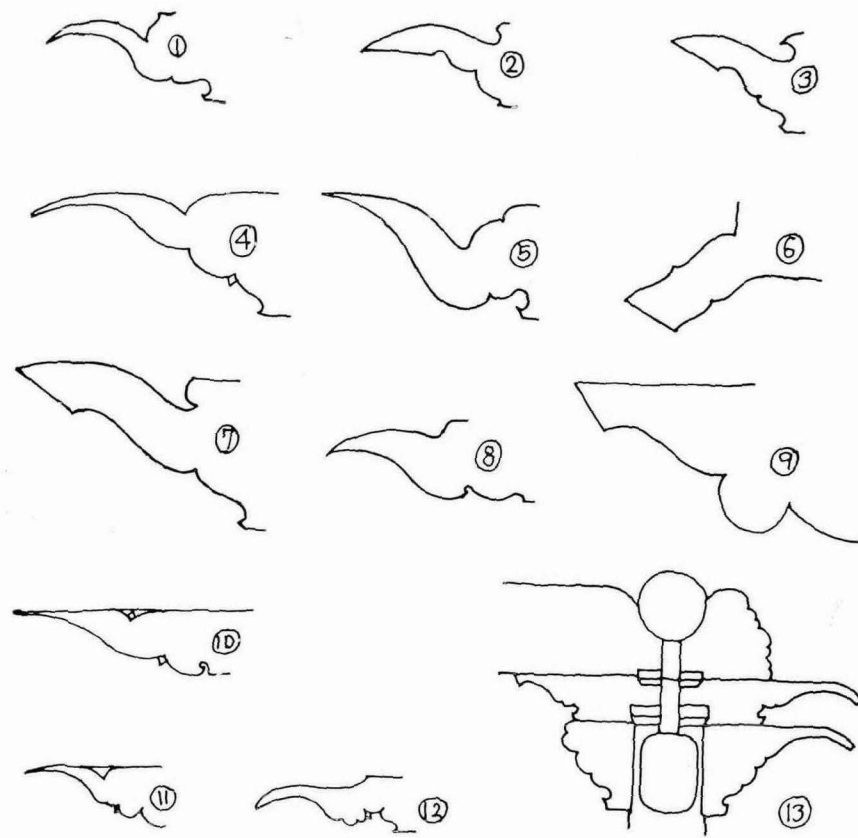


圖 3. 雙S字紋의 變形例

- | | | |
|------------|-----------|-----------|
| ① 淨水寺 法堂 | ② 觀龍寺 藥師殿 | ③ 松廣寺 國師殿 |
| ④ 鳳停寺 華嚴講堂 | ⑤ 無爲寺 極樂殿 | ⑥ 平壤 普通門 |
| ⑦ 道岬寺 解脫門 | ⑧ 松廣寺 下舍堂 | ⑨ 觀龍寺 大雄殿 |
| ⑩ 雙峯寺 大雄殿 | ⑪ 華嚴寺 覺皇殿 | ⑫ 傳燈寺 大雄殿 |
| ⑬ 景福宮 慶會樓 | | |

거의 위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과 크게 다른 바 없다.

위의 논문 발췌 내용에서 簷遮(마구리 밑면의) 彫刻 명칭은 劔形(고형)으로 부터 唐草樣劔形、反曲線(S字形)、S字形曲線、草刻(中括弧의 表識 모양)、雙S字形 등으로 변하면서 결국 雙S字紋의 用語가 一般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杉山信三博士는 簷遮의 雙S字紋 彫刻에 대하여 中國 福建省 泉州 開元寺 東塔 棋包의 彫刻된 部材와 比較하면서(朝鮮建築に見る天竺様の傳來に於て美術研究 第一七五號、一九五四年) 開元寺 東塔에 보이는 彫刻紋樣은 日本建築의 禪宗樣에서 보이는 彫刻紋樣과 비슷하며 韓國建築의 柱心包系 樣式의 簷遮(마구리 彫刻 모양과 類似한 點이 있으나) 彫刻 모양의 源流는 南宋의 영향을 全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하였다.

또 鄭寅國博士는 雙S字紋 彫刻의 發生에 對하여(雙S字形 刻法手法에 관한 小考..文化財 第八號、一九七四年) 印度 石造 建築 등에서 브래킷(Bracket) 下端을 雙S字로 만든 例와 르네상스 建築의 門燈 브래킷 下端曲刻에서 그 例를 들면서 이들 彫刻紋樣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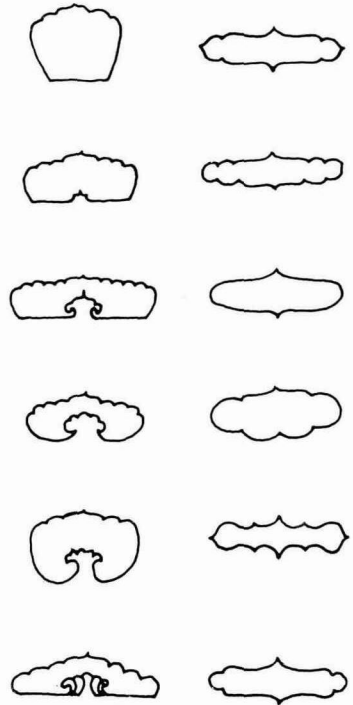


圖 4. 各棟眼紋樣
A. 石造物
B. 木工藝品

자연적인 인간의 造形活動으로 생길 수 있는 형태로서 別로 의도적인 方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인간 造形心理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두 論文에서 雙S字紋 彫刻에 관한 發生 동기는 前者의 경우 모호한 點이 있으며 後者の 경우에는 抽象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든다.

雙S字紋 彫刻은 木造建築의 簷遮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各種 석조물의 眼象머리 부분이나(圖四) 銅鏡 外緣、家具 및 佛座臺의 裝飾紋樣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圖六) 특히 경주의 佛國寺 極樂殿 앞 蓮花橋의 돌계단 윗면에서도 똑같은 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圖五) 木造 建築에 雙S字紋 彫刻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一三世紀 建物로 추정되는 現存 最古의 鳳停寺 極樂殿에 나타나고 있으며 一三世紀 이전부터 木造建築의 意匠彫刻으로 사용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一三世紀 以前의 木造建築은 비록 남아있지 않아 뚜렷한 근거는 없으나 佛國寺 蓮花橋 계단석에 木造建築에 보이는 雙S字紋이나 나타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木造建築에 있어서 部材의 마구리에 曲線紋樣의 彫刻이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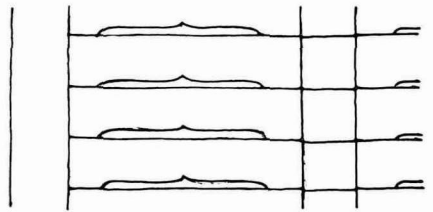


圖 5. 佛國寺蓮花橋階段石 紋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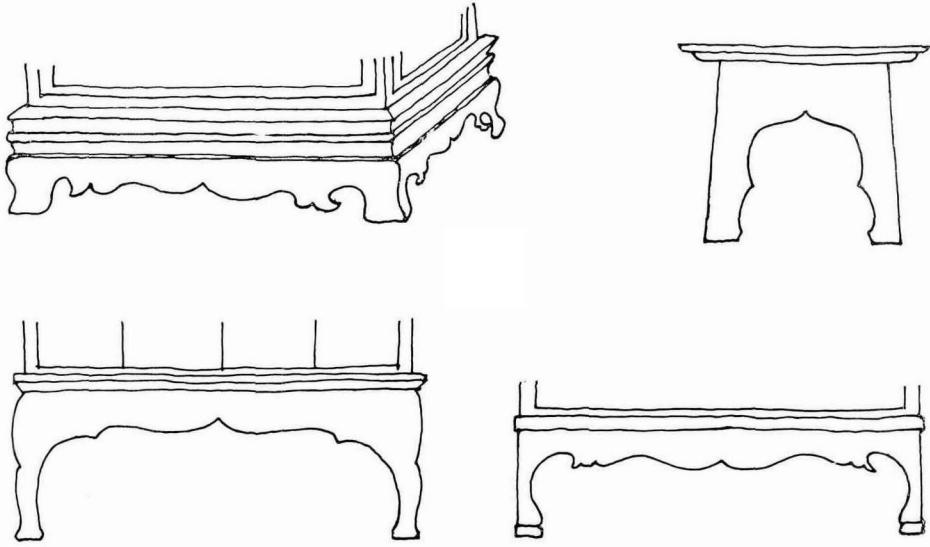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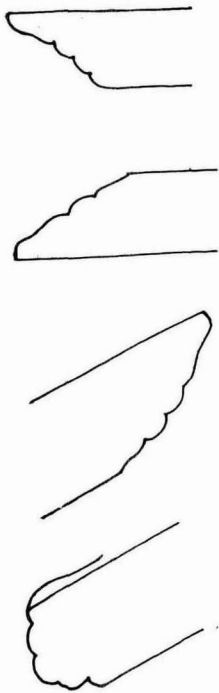
圖 6. 木工家具의 紋樣 例



圖 7. 中國의 木造建築部材
마구리紋樣

- ① 佛光寺 大殿
- ② 奉國寺 大雄殿
- ③ 廣濟寺 三大士殿
- ④ 開善寺 大殿
- ⑤ 上華嚴寺 大殿

圖 8. 日本의 大佛樣建物の 紋樣



기 시작하는 것은 八五七年 建立된 佛光寺 大殿이며 이 建物에서는 要頭(外目道里 下部 받침木)에 反曲線紋樣이 보인다. 이 大殿 외에도 一〇二〇年 建立의 奉國寺 大雄殿, 一〇二四年의 廣濟寺 三大士殿, 一一二三年의 開善寺 大殿, 一一四〇年의 上華嚴寺 大殿에서도 보이는 데 이들 建物에서는 주로 駝峰(花盤類의 部材)에 圓弧의 반복문양을 조각하였다.

〔圖七〕

일본의 경우 簷遮의 마구리 처리는 대부분 翹頭形으로 되었고 大佛樣의 建物에서 간혹 圓弧圓樣의 彫刻을 사용하였으나(圖八) 우리나라 簷遮의 마구리 彫刻紋樣과는 相異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의 木造建築 部材 마구리 彫刻紋樣은 대부분 凹弧의 反復紋이며 우리나라 木造建築의 簷遮 마구리 紋樣은 波紋을 連續시킨 性格을 띄우고 있다. 또한 雙S字紋의 祖形이라 할 수 있는 鳳停寺 極樂殿의 紋樣을 보면 한 波紋에서 다른 波紋으로 連續될 때의 變曲點의 위치가 紋樣 전체의 中心에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의 紋樣에서는 變曲點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變曲點의 위치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차츰 中心에서 下向하며 上部쪽이 날카롭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말하였듯이 우리나라 簷遮의 밑면 문양은 여러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그 바탕을 雙S字紋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雙S字紋은 그 紋樣의 着想이 蓮花紋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필자 자신의 비약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으나 佛國寺 蓮花橋의 계단석에 나타난 紋樣이 木造建築에 보이는 雙S字紋과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다. 蓮花橋의 계단석 문양이 蓮花를 표현한 것일진데 그 문양은 蓮花紋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똑 같은 문양이 木造建築에 나타나 있으면 그것 역시 蓮花紋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蓮花紋과 관련된 많은 장식이 우리나라 建築에는 나타나 있으며 그 紋樣들을 세심하게 보면 所謂 雙S字紋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즉 蓮瓣의 上部를 잘라 보면 그 상부에서 雙S字紋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着想이 眼象의 문양이나 家具, 佛座臺, 銅鏡外緣 등에

나타나는 雙S字形 문양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면 木造建築의 簷遮에 보이는 紋樣의 傳來와 解析에 關한 問題는 좀 더 수월하게 풀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三

이상에서 우리나라 木造建築에 보이는 所謂 雙S字紋 彫刻의 名稱과 傳來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견을 제시하였다.

所謂 雙S字紋 彫刻은 紋樣의 性格이나 現存하는 遺構(例佛國寺 蓮花橋 계단석 등)에 나타난 紋樣 등의 資料로 보아 蓮花에서 얻은 着想이 紋樣으로 表現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이 紋樣은 中國이나 日本의 木造建築에 보이지 않는 韓國 木造建築의 特有한 紋樣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지금까지 雙S字紋이라 불리어지고 있는 紋樣 名稱을 蓮花頭飾(연꽃머리장식) 혹은 蓮花頭紋(연꽃머리무늬) 등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叱正을 받고자 한다. (文化財研究所 保存科學室長)